선민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

(민16:34~50)

41.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6.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염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49.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염병에 죽은 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었더라
50. 염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
요즘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단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다울 때 이단에 대한 면역성이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교회의 면역력이 상실되거나 약화될 때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이단은 교회 안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는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인 이유는 선민(교인)들이 은밀한 위반을 욕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밀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6:3~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시고, 또 마6: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십니다. 기도도 남이 다 알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고 구제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너무 보편적인 것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고, 교회는 고사(枯死) 상태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라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라 죽어가는 이유를 바로 목사님들도 모르면서 확신하는데 '자기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적어도 틀리지 않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잘났다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 선민 중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같은 반란쟁이들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꼭 목사님만 모세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모세와 같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 같지는 못할지라도 모세 같이 될 수 있는 길은 알아야 하는데, 고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뻐하신 것처럼 나를 예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고사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분수를 넘은 자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이백오십 명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합니다.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삼켜져버리고 이백오십 명은 자기들이 들고 왔던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죽이는데 이 모든 일들을 모세와 아론 탓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예 끊어져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만 사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6장 전체를 읽다보면 분수를 넘는 여부가 주제로 흘러가는데 이상할 정도로 '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염병이 돌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이 염병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중보의 위치에 서서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서 염병을 앓는 백성들 가운데

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염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를 알기 위해서 고라와 그에 동조한 지도자들 이백오십 명에게도 향로를 가져오라'는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전하게 되고, 17절에서도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제각기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35절에서는 '이백오십 명이 분향하는 가운데 불로 진노를 받아서 다 죽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서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 현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향로가 분수를 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은밀한 위반을 향한 선민들의 욕망이 향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마다 보통 중요한 본문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 본문이 마지막 본문이 될 터이니 중요한 본문일 수밖에 없고 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되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본문인가 하면, 지금 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에 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모세를 통해서 콕 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에 남자가 제일 힘든 것은 여자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났냐고 해도 도대체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정도는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나중에는 힘드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 잘못했느냐고 묻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느냐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염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뭘 잘못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로 향불을 피우는 것의 상징하는 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세상(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살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향불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는 '기도'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번제단의 불로 향불을 피운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내 몸까지 포함해서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함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향로는 유일하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같은 마음이 되어 분수를 넘게 된 이유가 이 두 가지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로 앞에 마음의 지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법궤로 상징되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 대신에 세상의 이름을 담은 것이고 이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격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을 때 지성소 바로 휘장 바깥에 있는 향로가 뜻하는 바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추구함이 향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추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들었고 더 앞서서는 광야에서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향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유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테니, 이제 너희는 나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갖는 과정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서는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 다른 것의 이름이 있을 경황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각인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불이 뜻하는 바대로 지성소 안의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가지면 되는데, 내 몫, 내 분깃, 내 기업으로 허락된 하나님을 갖는 자가 없는데 그 이유는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어도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실제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깊은 교제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추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추구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이름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추구해야 합니다. 향불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장갑으로 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추구함이 없으면 오늘 고라처럼 되고 맙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면 모세에 대해서도 죽어야 하는데 모세를 보아하니 250만 명을 다스리는 권력과 지위가 마음에 쓱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세를 보는 시간에 본래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충격적인 기적들과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존재를 추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에 눈길을 두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것들로 대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있어요. 입 밖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은밀한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 은밀한 위반을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돈으로 바뀌게 되면 돈으로 바뀐 상태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고라가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 할 때에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고라와 함께 하는 이백오십 명이 향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결코 놓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향불을 들고 나오게 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 자기들도 하나님 편이라고 말했던 그 자들을 불로 태워 죽이십니다.

교인들과 이야기 할 때에 제일 어려운 점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오류가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이 타죠. 그 확신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꿈이 아닙니다. 모세의 꿈은 지금 위에 있는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꿈은 언제나 지금이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므로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었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모세의 꿈으로서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끌고 갔다가 망하거나 죽었거나 했겠지 이렇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길이 맞는다고 확신하는데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머리털만큼도 예외 없이 번제단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멋진 꿈을 꾸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열릴지라도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

음의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 안에는 그 일과 그 꿈의 이름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꿈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꿈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꿈을 주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비전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꿈과 비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전과 꿈이 대체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물고 놓지 않으면서도 고라의 길을 걷게 되는 은밀한 위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은밀한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위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다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실제로 쥐기 위하여 욕망하게 되고 은밀한 위반을 권장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물고 예수 이름을 물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둔 은밀한 위반의 내용물들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과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건강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내 관심을 건강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할 일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은 맡겨져야 하고 장갑으로 끼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려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쓰리쿠션 당구의 인생을 중단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과정을 통해서 쓰리쿠션 같은 삶이 끝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빼놓은 이야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을 일로 삼는 날입니다. 세상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만을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기도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은밀한 위반의 욕망이 죄적 체질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옵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소원하게 될 때에 나를 발견하는데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번제단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소원(향로)하는 대신에 그것을 소원하게 만들어서 나의 분수를 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장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십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곳으로 들어온 그 이름을 따라 향불을 피우며 추구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있는 입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결별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누가 말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라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달려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한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아버지와 아들하나님 사이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하늘의 교제에 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깊이깊이 나를 장갑으로 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매여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데 그런 염려가 다 없어질 정도가 되려면, 십자가 붙잡고 순간순간 은밀하게 들어오는 세상의 이름을 물리치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안식일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십자가 붙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제에 성령님을 통해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장갑 삼으실 수 있고, 내가 분수를 넘지 않고 내 몫의 기업들을 온전히 이루면서 내 몫으로 할당된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민들의 은밀한 위반의 욕망이 무서운 이유는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잠을 잘 동안에도 마음으로는 침대나 요 위에서 자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자게 해주셔서 잠을 잘 동안도 십자가를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은밀한 위반을 향한 생래적 욕망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